

##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areer Maturity, Career-Identity, and Career-Decision Self-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김 사라형선(Kim, Sarah Hyoung-Sun)<sup>1)</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ncrease the career maturity, career-identity and career-decision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uch a program.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us developed, an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exposed to the program and a control group without exposure to the program were compared. The program was administered over eight weekly sessions, each session lasting ninety minut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twenty four students. The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were organized with twelve students in each. For the purpose of data processing, SPSS 16.0 was us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results. The Career Maturity Scale, the Identity Scal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were used in a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treatment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 statistically increasing degree of career maturity, career-identity and career-decision self-efficacy levels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ly

---

\* 본 논문은 2013년도 침례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3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sup>1)</sup> 침례신학대학교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arah Hyoung Sun Kim,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Daejeon 305-358, Korea  
E-mail : khsahm@hanmail.net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increasing career maturity, career-identity and career-decision self-efficacy levels.

**Key Words** :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진로정체감(career-identit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decision self-efficacy).

## 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문제, 또래관계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Lee, Lee & Lee, 2006). 청소년의 갈등 중 진로 문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Ku, Yoon & Shin, 2002).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학업 성적이나 부모의 권유에 의해 혹은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된 직업관 등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Lee, 1986). 또한 고등학교에는 진로지도 교사가 부족하고(Niles, 1997), 직업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Kim, 1993), 진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Jang, 1995; Kim, 1993), 진로지도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성적에 의존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Kang, 2003), 대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중도 탈락률과 직업에 대한 무계획(Kim, 2007), 전공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Lee, 1986). 이에 청소년 시기부터 적성과 흥미를 찾아 바른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진로상담이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 결정과 관련된 변인에는 진로성숙도가 있다. 진로성숙도는 동일한 연령층과 비교한 상대적인 직업의 준비도를 말한다(Crities, 1973; Super, 1984). 또한 진로는 자신, 일, 직업 세계

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Kim, Kim & Jung, 2000),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통해 이루어지고(Choi, 2006; Kim, 2001),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차를 보인다(Fuoad, 1988). 즉 진로성숙도는 전 생애를 통해 직면하는 직업에 대한 준비도와 내적 능력이며(Choi, 2006), 직업선호도의 명료화 및 구체화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Lee, 2003, 재인용).

이외에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진로정체감을 들 수 있다.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목표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것을 말한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이 탐색한 일의 세계와 자신을 보다 잘 연결시킬 수 있다(Holland, 1997). 즉 청소년이 확실한 진로정체감을 갖고 있으면 보다 분명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Fuqua & Newman, 1994; Harren, 1979). 진로정체감은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Kim, 1993). 이에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과 진로성숙도 및 직업흥미에도 영향을 미친다(Betz & Hackett, 1983; Lee & Lee, 2002; Lent, Brown & Hackett, 1994, 2000; 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와 결정한 진로를 행동으로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Hackett & Betz, 1981; Jun, 2004).

이상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도 증진 시킬 수 있고(Blustein, 1987; Lee & Lee, 2000; Luzzo, 2000),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행동으로 잘 실행 시킬 수 있다(Bullock-Yowell, Andrews & Buzzetta, 2011). 이에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보면 진로성숙도란 직업에 대한 준비의 정도에 대한 변인이고(Critics, 1973; Super, 1984),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표나 흥미와 능력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올바른 직업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변인이며(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올바른 진로결정을 한 후 그것을 잘 실행 할 수 있게 하는 변인이다(Bullock-Yowell, Andrews & Buzzetta, 2011). 이에 세 가지 변인은 모두 진로 결정과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변인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진로에 대한 준비, 결정, 실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Byun, 1990; Kim, 1994; Kim, 2001),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e, 1988; Shin, 1992),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Park, 1993)가 있다. 이외 진로 집단상담이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결정 수준, 진로정체감에 효과가 있다고 한 연구 들(Kim, 2001; Kim & Lee, 1999; Song & Chun, 1996)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진로성숙도의 낮은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나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 및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탐색한 직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Kim, 2009; Kim & Park, 2002). 다시 말해, 홀랜드(Holland) 적성 탐색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Kim, 2011)이나 영상매체를 주로 사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Choi, 2006; Choi & Kim, 2010), 일반 진로교육 프로그램들(Byun, 1990; Kim, 1994; Kim, 2001)은 주로 적성과 흥미검사, 가치관 검사 등을 실시하고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진로지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진로결정 문제와 학교 현장의 적응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Kim & Park, 2001). 반면 인지·정서·행동치료를 중심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Kim & Park, 2001)은 정서적 부분은 다루었으나 진로탐색과 결정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성과 흥미 탐색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 뿐 아니라 정서적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심리 치료적 접근을 통합하여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통찰과 진로 결

정을 잘하도록 돕는 스트롱(Strong) 직업흥미 검사(Kim, 2001)와 학생들의 흥미 있는 참여를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영상매체와 진로에 대한 결정 뿐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기본 오류를 잡아 주고 정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지·정서·행동 치료와 진로 가계도 등을 통합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고등학생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1-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1-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1-3.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추후에도 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K상담소에 공고 낸 뒤 참가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2명 중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인 24명을 선정하여 통제집단에 12명 실험집단에 12명씩 각각 배정하였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입시로 인해 집단상담에 참여할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1학년으로 제한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외 연구 대상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연령을 보면 실험집단은 40대 이상이 11명(91.6%)으로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은 40대 이상이 12명(100%)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실험집단에서 40대 이상이 11명(91.6%), 통제 집단에서 40대 이상이 12명(100%)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을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대졸이상이 7명(58.3%), 6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을 보면, 실험집단은 대졸이상이 8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은 대졸이상이 7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수입은 실험집단에서 300만원~399만원이 6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은 300만원~399만원 이상이 5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 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Kim(2005)이 사용한 교수체계 개발(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모형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수체제 개발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존의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진 효과를 밝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를 위해서는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를, 진로정체감을 위해서는 진로계획 수립하는 활동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위해서는 인지·정서·행동 치료를 포함하였다. 그 외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였고 내용과 활동들을 구성하였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목표들을 회기별로 구성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매회기에 필요한 활동지를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에 맞는 DVD도 선정하였다.

셋째, 개발 단계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구성된 목표와 세부적인 활동들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과제를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그리고 집단상담 전문가 1명과 상담 전문가 2명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구하여 매회기 시작에 구성원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게임 활동을, 매회기 마지막에 소감나누기 활동을 추가하여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석사 졸업 상담사가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전, 사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프로그램을 마친 4주 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추후효과를 검증하였다.

### 3.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 내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돕고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흥미를 찾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그것에 맞는 직업을 찾음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직업세계 탐색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고 자신의 선호직업과 유망한 직업 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 진로정체감을 증진 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셋째, 직업 선택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 직업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이외 진로가계도를 그려보는 작업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업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발견하게 하며 본인이 주장했던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탐색하고 방안들을 찾아보는 활동과 장점 찾는 활동들을 한 후 진로에

&lt;Table 1&gt;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Session	Theme	Objectives	Activities	Expectation Effects
1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of program objectives and activities</li> <li>• Establishing group confidence and intimac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king pre-test</li> <li>• Orientation of the program</li> <li>• Explanation of group regulation and making byname</li> <li>• Playing game for intimacy</li> </ul>	Increasing Intimacy
2	Investigation of aptitude and intere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one's aptitude</li> <li>• Finding one's interests</li> <li>• Finding a career what fits one's aptitude and interes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king the Strong Interest Test</li> <li>• Listening the lecture</li> <li>• Finding one's interests</li> <li>• Finding one's aptitude</li> <li>• Finding the career</li> <li>• Sharing with the group</li> </ul>	Increasing of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	Investigation of career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oring career worl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aring the various career world</li> <li>• Classifying liking career and disliking career</li> <li>• Finding the promising career and analogizing the change of career world</li> <li>• Discussion and presentation</li> </ul>	Increasing of caree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	Investigation of career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ding one's career valu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eking the one's career value</li> <li>• Choosing a career which fits to career value</li> <li>• Having group discussion.</li> </ul>	Increasing of career self-identity
5	Rational decision about c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nging from career irrational belief to career rational belie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rawing a career family tree</li> <li>• Investigating of one's belief about preferred career</li> <li>• Investigating of irrational belief about career decision</li> <li>• Changing from irrational belief to rational belief about career decision</li> </ul>	Increasing of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6	Choice of major and career objectives establish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oring a school and major which fit to one's aptitude</li> <li>• Exploring the obstacles</li> <li>• Exploring the solu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oosing a school and major which fit to one's aptitude</li> <li>• Finding obstacles which interrupt the establishment of one's objectives</li> <li>• Making a specific plan and giving a feedback to each other</li> </ul>	Increasing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7	Seeking of assets and making a career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ding one's strengths and establishing career plan</li> <li>• Establishing specific strateg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tching the DVD and sharing</li> <li>• Finding one's strengths and other member's strengths, then sharing together</li> <li>• Making a specific plan which accomplish the career and sharing</li> </ul>	Increasing of caree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8	Clo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aring the program achievement</li> <li>• Planing next mee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aring the participation impression</li> <li>• Presenting and giving a feedback</li> <li>• Deciding next meeting</li> <li>• Taking post-test</li> </ul>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움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돕는데 있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 인지·정서·행동 치료, 직업세계 탐색, 진로 가계도 탐색, 영상매체 활용 등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진로 집단상담은 기존의 진로 집단프로그램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고등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검사로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를 사용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Kim, 2011; Kong & Song, 2012; Kim & Baek, 2011)은 홀랜드 검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홀랜드 검사는 개인특성과 환경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 검사인데 반해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는 홀랜드의 여섯 가지 유형뿐 아니라 기본흥미 척도 및 개인특성 척도까지 포함하여 구성된 검사이다(Kim, 2001). 아직까지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를 사용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라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를 사용해 집단상담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별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 직업카드를 사용한 직업세계 활동, 직업 가치관 탐색 활동들을 사용해 적성과 흥미를 찾는 것 뿐 아니라 인지·정서·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적 접근을 병행해 정서적 부분도 다루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Ginzberg가 제시하는 고등학생의 진로 발달 특성을 반영한 활동들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진로가계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소 다르다.

Ginzberg는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고등학생은 가치기와 전환기에 해당되는데, 가치기(고 1)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자신의 선택한 직업을 가치관과 생애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 보는 시기라고 하였다(Lee, Kim, Kim & Choi, 2003, 재인용).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감안해 프로그램 내용에 직업 선호, 직업 가치관, 생애 목표를 통합하여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진로 가계도를 포함시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치관이나 직업 선호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소개(1회기), 적성 및 흥미 탐색(2회기), 직업세계 탐색(3회기), 직업가치관 탐색(4회기), 직업에 대한 합리적 결정(5회기), 전공 탐색 및 진로 목표 수립(6회기), 자원 찾기 및 진로계획 수립하기(7회기), 마무리(8회기)로 총 8회기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는 총 90분으로 간단한 게임 활동(5분), 구조화된 활동(60분), 나누기(20분), 마무리(5분)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에는 검사하기, 게임하기, 활동지 적기, 그룹 토의하기, DVD 감상하기, 소감 나누기 등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회기마다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 4. 연구절차

##### 1)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시작하는 날인 2013년 1월 6일에 검사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 2) 프로그램 실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13년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각 회기 당 90분씩 8주 동안 K시에 있는 K상담소에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은 상담심리 전공 석사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 3)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끝나는 날인 2013년 2월 24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 4) 추후검사

추후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4주 후인 2013년 3월 24일에 사전·사후검사와 동일한 검사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하였다.

## 5. 측정도구

### 1) 진로성숙도 검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2001)에서 개발하고 송혜정(2013)이 사용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Scale)는 총 54개의 문항으로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기이해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7이었다.

### 2) 진로정체감 검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olland와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진로 검사(My

Vocational Scale : MVS) 중 정체감 검사(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해석하며 자신의 성격, 재능, 목표, 흥미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9이었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하고 이은경(2001)이 타당화 시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5개 문항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본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6이었다.

##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같은 집단임을 확인하기 위해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연구변인 각각에 대해 비모수 통계의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의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 rank test)



을 실시하였고, 추후검사에서도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집단 간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표집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 두 집단의 특성이 같

다는 가정이 성립해야만 정확한 프로그램 효과를 밝혀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참가자 12명, 통제집단 참가자 12명으로 전체 사례수가 30명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정규분포가정을 충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 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에 진로성숙도,

<Table 2>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Experimental group (N= 12)	Controlled group (N= 12)	Mann-Whitney U
	Means rank (Rank total)	Means rank (Rank total)	Z
Career maturity	15.04(180.50)	9.96(119.50)	-1.762
Career-identity	13.13(157.50)	11.88(142.50)	-.457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5.67(188.00)	9.33(112.00)	-2.197

<Table 3>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led group after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in posttest

	Experimental group (N= 12)	Controlled group (N= 12)	Mann-Whitney U
	Means rank (Rank total)	Means rank (Rank total)	Z
Career maturity	18.50(222.00)	6.50(78.00)	-4.161***
Career-identity	18.50(222.00)	6.50(78.00)	-4.195***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8.50(222.00)	6.50(78.00)	-4.170***

\*\*\* $p < .00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Z = -4.161$ ), 진로정체감 ( $Z = -4.195$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Z = -4.170$ )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진로정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3)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 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 $Z = -3.061$ ), 진로정체감 ( $Z = -3.065$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Z = -3.062$ )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추후효과 검증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4주 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 집단상담

<Table 4> Differences of pretest and posttest i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led group after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Experimental group (N= 12)		Wilcoxon signed rank test Z	Controlled group (N= 12)		Wilcoxon signed rank test Z
		M	SD		M	SD	
Career maturity	Pretest	2.28	.22	-3.061**	2.121	.145	-.356
	Posttest	4.45	.12		2.149	.137	
Career-identity	Pretest	1.19	.05	-3.065**	1.189	.055	-2.161
	Posttest	1.77	.14		1.143	.064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etest	2.79	.23	-3.062**	2.560	.203	-.393
	Posttest	5.24	.11		2.526	.197	

\*\* $p < .05$ .

<Table 5> Differences of posttest and follow-up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led group

	Experimental group (N= 12)				Wilcoxon signed rank test Z	Controlled group (N= 12)				Wilcoxon signed rank test Z
	Posttest		Follow-up test			Posttest		Follow-up test		
	M	SD	M	SD		M	SD	M	SD	
Career maturity	4.49	.12	4.47	.09	-1.059	2.14	.13	2.13	.16	-.392
Career- identity	1.77	.14	1.81	.09	-.850	1.14	.06	1.17	.05	-.855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24	.11	5.20	.15	-.672	2.52	.19	2.45	.14	-1.302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의 청소년은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그 효과가 4주 후에도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여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Kim(2005)이 사용한 교수체계 개발 모형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다. 진로 집단상담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 인지·정서·행동 치료, 진로 가계도 탐색, 영상매체 활용 등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에는 프로

그램을 8주 동안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시작일과 종료일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종료 4주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세 변인 모두에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회기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1, 2회기에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회기 때 집단원 들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집단 분위기를 만든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2회기의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 진로를 선택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 진로성숙도가 증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홀랜드 적성탐색 검사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였다는 연구(Jung, 2004)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

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켰다는 연구(Kim,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3, 4회기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회기의 직업카드를 사용한 직업세계 탐색활동과 4회기에 제시한 직업가치관 탐색 활동 및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활동을 통해 진로정체감이 증진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결과는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1998; Jung, 2004)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이 진로정체감에 효과가 있다는 Park(2007)의 연구와도 다소 일치한다.

셋째, 5, 6회기에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5회기의 인지·정서·행동치료를 통해 직업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교정시켜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6회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활동과 장애물을 탐색하고 방안을 세우는 활동들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을 것이다. 이 결과는 REBT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켰다는 연구(Kim & Park, 2002)와 진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는 연구(Yoon, 2008) 및 합리적 신념이 높은 사람이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선행연구(Kim & Park, 2001)와 다소 일치한다.

넷째, 7회기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 7회기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자원을 찾아 구체적인 진로 계획과 전략 세우기 활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결과는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1998;

Jung, 2004)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7회기의 영상매체를 사용한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결과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진로상담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Choi & Kim, 2010)와 맥을 같이한다. 이외에도 장점 찾기와 칭찬하기 활동 등이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칭찬이나 인정 등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준다는 연구(Jo & Choi, 2007; Kim, 2003)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증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추후효과 검증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4주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실험집단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도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달리 적성과 흥미 탐색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뿐 아니라 정서적 부분을 다루는 심리치료까지 접목시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이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는 학부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학부모와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여학생을 동시에 진행할 때 야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남·여학생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후효과 검증에서 그 효과를 4주 만에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보다 정확한 지속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주 후, 8주 후, 12주 후와 같은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바이다.

넷째, 본 연구는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 사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진행자를 찾기 어려워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객관성을 위해 노력은 했으나 프로그램 효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배제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진행자가 다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etz, N. E., & Hackett, G. (1983). The relationship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99.
- Blustein, D. L. (1987). Decision-making styles and vocational maturity :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61-71.
- Bullock-Yowell, E., Andrews, L., & Buzzetta, M. E. (2011). Explai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Personality, cognition, and cultural mistrus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400-411.
- Byun, J. S. (1990).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 search group counseling for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B. J., & Kim, H. J. (2010). Career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udio-visual methods. *Journal of Middle Education Study, 58*(2), 127-156.
- Choi, H. 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decision ma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Choi, S. W. (2006).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s career maturity by using audio-visual methods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Crities, J. O. (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 McGraw-Hill.
- Fouad, N. A. (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59.
- Fuqua, D. R., & Newman, J. L. (1994). An evaluation of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4), 429-430.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 Odess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Holland, Daiger, and Power's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3), 117-125.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1191-1200.
- Jang, S. M. (1995).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according to change of industry and manpower supply and demand. *The Journal of Career Research*, 4, 170-197.
- Jo, M. S., & Choi, K. S.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3), 1085-1099.
- Jun, K. A. (2004).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B. Y. (2004). The Effect of a career guidance program on ego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ang, H. K. (2003). Study on differences in the progress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by decision making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 University, Seoul, Korea.
- Kim, B. M. (2003). The effects of a self-efficacy program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ungbuk, Korea.
- Kim, B. W.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B. W. (2007). The effects of group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thr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4), 1453-1465.
- Kim, B. W., Kim, B. S., & Jung, C. Y. (2000). *School career counseling*. Seoul : Hakjisa.
- Kim, G. J., & Lee, Y. H. (1999). The study for effects of a career seeking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Masan, Korea.
- Kim, H. J. (2009).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decision-making level. *Yongin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16, 55-70.
- Kim, H. S. (2001). Development and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

-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 261-278.
- Kim, H. S., & Park, K. A. (2001). A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REBT based problem-solving 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 231-250.
- Kim, H. S., & Park, K. A. (2002). A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REBT based group career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14(2), 339-358.
- Kim, I. H. (2001). Effect of the career search program with group counsel on the self concept and career maturity of the blind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M., Baek, S. I. (2011). Effects of Holland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of college freshmen. *The Korean Journal of Job Career*, 1(2), 19-39.
- Kim, K. R. (2001). Effect on guidance maturity of junior high school by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Kyungbuk, Korea.
- Kim, M. J. (2001). Mutual relations between MBTI and Strong Interest Inventory of Korean vers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8(8), 175-195.
- Kim, M. O. (1993). Relationship between the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im, M. S. (2011). Effects of Holland's course group consultation program on course career maturity and cour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strict Society Study*, 19(2), 123-138.
- Kim, S. C. (1994). The effects for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 Kim, Y. M. (1998). The effect of career develop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19, 69-88.
- Kim, Y. S. (1993). Effect of career develop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Kyungbuk, Korea.
- Kong, I. G., & Song J. W. (2012). Effects of Holland's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efficacy of high-school underachievers' RIASEC-type. *The Study of Middle Education*, 6(2), 615-646.
- Ku, H. A., Yoon, J. H., & Sin, H. I. (2002). A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freshman.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3, 1-36.
- Lee, E. K.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K., & Lee, H. S.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4*(1), 109-120.
- Lee, H. R., Kim, B. H., Kim, B. S. Cho, E, Y. (2003). *Modern Career Counseling*. Seoul : Hakjisa.
- Lee, H. R., Lee, C. H., & Lee, Y. (2006).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5*(1), 221-233.
- Lee, H. Y. (2003). *Career Maturity and Counseling*. Seoul : Hakjisa.
- Lee, J. C. (1986). *Study about behavior inclination of youth*. Seoul : Korea Educational Association.
- Lee, K. H., & Lee, H. 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Lee, K. J. (1988). The effects of career value clarification program on a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47*, 36-49.
- Luzzo, D. A. (2000). *Career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s*. Washington : APA.
- Niles, S. G. (1997). Annual review :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15-141.
- Park J. Y. (1993).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ego-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J. Y. (2007). Effect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using occupation card on the sense of identity related to the career path of the high school sen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J. S. (1992).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of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guk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J. H., & Chun, S. M. (1996). A theoretical review for the development of the juvenile career counseling program. *Journal of Understanding People, 16*, 43-69.
- Song, H. J (2013).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on aggression, anger control,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of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 Super, D. E. (1984). Perspective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work. In N. C. Gysbers (Eds.). *Designing careers : Counseling to enhance education, work and leisure*(pp. 1-34). San



- Francisco :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Yoon, Y. R. (2008). An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y in Education and Culture*, 12(2), 125-145.

---

2013년 6월 29일 투고, 2013년 10월 4일 수정  
2013년 10월 14일 채택